

WEBVTT

00:00:11.727 --> 00:00:13.347

루카스 진민 쌤입니다.

00:00:13.487 --> 00:00:18.147

이제 통합사회 3단원 인문지리
파트로 넘어왔습니다.

00:00:18.247 --> 00:00:21.321

어떤 생활 공간적 개념들을
이제 배우실 거예요.

00:00:21.421 --> 00:00:25.319

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서서
2단원은 자연 지리.

00:00:25.419 --> 00:00:29.266

그러니까 자연환경과 관련된
그런 테마들을 정리했다면

00:00:29.366 --> 00:00:31.853

이번 3단원은 인문지리.

00:00:31.953 --> 00:00:35.255

그러니까 인문환경적인
관점에서 지리의 주요 내용을

00:00:35.355 --> 00:00:37.024

한번 짹짹 정리하는 겁니다.

00:00:37.124 --> 00:00:38.179

아시겠죠?

00:00:38.279 --> 00:00:42.649

역시나 총 3번에 걸쳐서 여기 통합
사회 3단원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.

00:00:42.749 --> 00:00:43.407

갑니다.

00:00:43.507 --> 00:00:45.867

그러면 그중 첫 번째 테마.

00:00:45.967 --> 00:00:46.749

뭐니까?

00:00:46.849 --> 00:00:51.261

바로 산업화와 도시화 주제를
한번 살펴볼 거예요.

00:00:51.361 --> 00:00:54.155

산업화가 뭔지, 도시화가 뭔지.

00:00:54.255 --> 00:00:58.044

그리고 산업화, 도시화 되면서
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

00:00:58.144 --> 00:01:01.417

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

어떻게 또 해결할 거냐.

00:01:01.517 --> 00:01:03.171
이런 주제예요.

00:01:03.271 --> 00:01:04.653
갑니다.

00:01:04.753 --> 00:01:07.192
역시나 어렵진 않습니다.

00:01:07.292 --> 00:01:08.050
출발.

00:01:08.150 --> 00:01:09.792
일단 의미부터 봐야 되겠죠?

00:01:09.892 --> 00:01:14.919
되게 쉬운 게 산업화와 도시화의
뜻은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.

00:01:15.019 --> 00:01:19.113
산업화라는 것은 앞서
저희가 몇 번 배워봤지만

00:01:19.213 --> 00:01:27.821
경제의 중심이 농업에서 산업과 공업으로
바뀌는 현상을 산업화라고 해요.

00:01:27.921 --> 00:01:31.790
그러니까 경제의 중심 구조가
2차산업 중심이 되는 거죠.

00:01:31.890 --> 00:01:35.017
산업 또는 공업 중심으로
변해간다는 것입니다.

00:01:35.117 --> 00:01:37.413
그래서 뜻은 그대로죠?

00:01:37.513 --> 00:01:43.816
농업 중심의 사회가 굳이 말하면
1차 산업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가

00:01:43.916 --> 00:01:46.009
광공업, 서비스업 중심.

00:01:46.109 --> 00:01:51.770
광공업이 2차 산업이고
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죠?

00:01:51.870 --> 00:01:55.270
이렇게 어떤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.

00:01:55.370 --> 00:02:00.669
경제의 중심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
현상을 산업화라고 해요.

00:02:00.769 --> 00:02:06.990
그러면 도시화는 뭐냐, 생활 양식이
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해가는 현상.

00:02:07.090 --> 00:02:07.957

이게 도시화죠.

00:02:08.057 --> 00:02:12.667

그래서 산업화하고 도시화는 거의
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죠.

00:02:12.767 --> 00:02:13.884

볼까요?

00:02:13.984 --> 00:02:14.779

도시화.

00:02:14.879 --> 00:02:18.583

한 국가 내에서 도시 인구
비중이 높아지는 현상

00:02:18.683 --> 00:02:23.769

또는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많이
확대되는 현상이 도시화입니다.

00:02:23.869 --> 00:02:24.608

어렵지 않죠?

00:02:24.708 --> 00:02:26.147

간단하죠.

00:02:26.247 --> 00:02:33.123

그러면 이제 본론 봐야 되는데 딱 봐도
뭔가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가 나오고

00:02:33.223 --> 00:02:36.229

그리고 무슨 달걀 프라이처럼 생긴
그림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.

00:02:36.329 --> 00:02:40.207

여기서 아마 내신 시험 문제가
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.

00:02:40.307 --> 00:02:45.139

일단 보시면 산업화, 도시화
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느냐

00:02:45.239 --> 00:02:49.673

첫 번째, 집약적 토지
이용이 이루어집니다.

00:02:49.773 --> 00:02:50.964

집약이 뭐죠?

00:02:51.064 --> 00:02:55.733

어느 한 그 지역에, 어느 한
곳에 집중시킨다는 뜻인 거죠.

00:02:55.833 --> 00:03:00.584

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넓게 넓게
골고루 분포시키는 것이 아니고

00:03:00.684 --> 00:03:07.098

어떤 특정 지역에 토지 이용도가 집중되는

걸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.

00:03:07.198 --> 00:03:11.001
그래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
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

00:03:11.101 --> 00:03:14.151
당연히 고층 건물이
들어설 수밖에 없죠.

00:03:14.251 --> 00:03:17.770
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를
광범위하게 사용한다면

00:03:17.870 --> 00:03:24.098
이렇게 넓은 토지에 별로 안
높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

00:03:24.198 --> 00:03:29.789
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
그만큼 지가가 비싸니까, 땅값이 비싸니까

00:03:29.889 --> 00:03:34.509
이 제한된 토지에서 여러 기능을
집약적으로 해야 되니까

00:03:34.609 --> 00:03:40.004
이런 건물보다는 다소 고층 건물로
올라가는 경향이 있죠, 그렇잖아요.

00:03:40.104 --> 00:03:41.495
그래서 지대가 비싸면,

00:03:41.595 --> 00:03:46.290
지가가 비싸면 그만큼
고층 건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

00:03:46.390 --> 00:03:48.313
이걸 스카й 스크래퍼라고 하죠.

00:03:48.413 --> 00:03:52.259
점점 위로 올라가는
거죠, 이해되죠?

00:03:52.359 --> 00:03:53.613
다음 두 번째요.

00:03:53.713 --> 00:03:56.419
지역에 분화가 이루어집니다.

00:03:56.519 --> 00:04:00.426
이 분화라는 건 일종의
분업화 또는 전문화.

00:04:00.526 --> 00:04:02.707
그런 뜻인데 봐요.

00:04:02.807 --> 00:04:07.151
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도시 내부
구조가, 여기 별표입니다.

00:04:07.251 --> 00:04:10.985

도시 내부 구조가
분업화되는 겁니다.

00:04:11.085 --> 00:04:15.774

다시 말씀드리면, 업무 상업
기능이 있는 곳이 있고

00:04:15.874 --> 00:04:18.537

주거 기능, 그러니까
잠자는 기능이죠?

00:04:18.637 --> 00:04:23.503

그리고 공업, 이렇게 기능적인
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

00:04:23.603 --> 00:04:27.062

그래서 이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
분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

00:04:27.162 --> 00:04:28.912

바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.

00:04:29.012 --> 00:04:32.806

특히나 이 그림을 잘
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

00:04:32.906 --> 00:04:33.568

아시겠죠?

00:04:33.668 --> 00:04:36.876

그러면 이 그림을 좀 집중적으로
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36.976 --> 00:04:41.796

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이
지대 곡선 그래프라는 건데요.

00:04:41.896 --> 00:04:45.394

제목은 별로 의미가 없고
이걸 읽을 줄만 알면 돼요.

00:04:45.494 --> 00:04:46.993

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.

00:04:47.093 --> 00:04:48.962

이건 잘 보세요.

00:04:49.062 --> 00:04:53.797

보시면 X축은 거리입니다.

00:04:53.897 --> 00:04:58.423

그러니까 무슨 말이냐,
여기가 출발점이잖아.

00:04:58.523 --> 00:05:03.540

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
있어요, 라는 뜻인 겁니다.

00:05:03.640 --> 00:05:04.252

오케이?

00:05:04.352 --> 00:05:06.989
다음, Y축은 지대조, 지대.

00:05:07.089 --> 00:05:09.818
그러니까 지가를 말하는
거예요, 땅값.

00:05:10.390 --> 00:05:11.748
이른바 토지 비용.

00:05:11.848 --> 00:05:15.457
그러면 Y축이니까 위로
올라갈수록 어때요?

00:05:15.557 --> 00:05:19.669
지대가 비싸지고
있어요, 이 뜻입니다.

00:05:19.769 --> 00:05:20.466
이해가 됩니까?

00:05:20.566 --> 00:05:23.064
그러면 가보자.

00:05:23.611 --> 00:05:27.722
첫 번째, 이 선 색깔
잘 봐요, 이 선.

00:05:27.822 --> 00:05:29.608
이건 지금 어때요?

00:05:29.708 --> 00:05:32.633
거리가 멀리까지 못 가죠?

00:05:32.733 --> 00:05:33.529
왜 그래요?

00:05:33.629 --> 00:05:38.289
보시는 것처럼 지대가
점점 비싸지는 겁니다.

00:05:38.389 --> 00:05:40.462
다음, 여기는 어때요?

00:05:40.562 --> 00:05:43.175
그만큼 거리의 범위가 확장되죠?

00:05:43.275 --> 00:05:46.526
왜?
지대가 조금 싸기 때문입니다.

00:05:46.626 --> 00:05:48.454
그러면 이 선은 어때?

00:05:48.554 --> 00:05:51.073
가장 멀리까지 벌어져 있죠?

00:05:51.173 --> 00:05:51.721
이유는요?

00:05:51.821 --> 00:05:54.508

역시나 지대가 가장
싸기 때문이에요.

00:05:54.608 --> 00:05:59.564

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거리까지
벌어지고 확장될 수 있느냐.

00:05:59.664 --> 00:06:04.537

이걸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
지대인 거죠, 토지 비용.

00:06:04.637 --> 00:06:08.825

땅값에 근거해서 그 기능이
결정되는 거예요.

00:06:08.925 --> 00:06:09.768

이해가 돼요?

00:06:09.868 --> 00:06:11.529

그러니 봐 봐.

00:06:11.629 --> 00:06:16.823

대도시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
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보자.

00:06:16.923 --> 00:06:21.717

일단 지대가 가장 비싼
지역이 여기입니다.

00:06:21.817 --> 00:06:25.467

땅값이 너무 비싸니까
멀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.

00:06:25.567 --> 00:06:30.341

그만큼 토지가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되는
것이 바로 여기 구간인 거죠.

00:06:30.441 --> 00:06:30.953

그렇죠?

00:06:31.053 --> 00:06:32.962

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
무슨 지구예요?

00:06:33.062 --> 00:06:34.657

상업 지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.

00:06:34.797 --> 00:06:37.364

그래서 서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

00:06:37.464 --> 00:06:43.122

서울 같은 대도시는 상업지구가
도심 부분에, 그렇죠?

00:06:43.222 --> 00:06:47.955

인구가 가장 밀집되는 지가가 가장
높은 그런 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.

00:06:48.055 --> 00:06:50.576

가장 대표적인 게

명동 같은 데입니다.

00:06:50.676 --> 00:06:55.097

강남 같은 곳이에요, 지대가
그만큼 비싸니까 상업 기능.

00:06:55.197 --> 00:07:00.051

어떤 금융기능, 그런 중심적인 업무
기능이 거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7:00.151 --> 00:07:02.522

이걸 결정짓는 가장
중요한 요소는 뭐다?

00:07:02.622 --> 00:07:04.474

지대입니다, 지가.

00:07:04.574 --> 00:07:06.819

땅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.

00:07:06.919 --> 00:07:07.844

오케이?

00:07:07.944 --> 00:07:13.600

그러면 두 번째, 상업 지구보다 좀 더
넓게 분포가 되는 게 여기까지죠.

00:07:13.700 --> 00:07:14.236

그렇죠?

00:07:14.336 --> 00:07:20.536

여기 변곡점, 점이 만나는
지점에서 이 지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

00:07:20.636 --> 00:07:21.590

오케이?

00:07:21.690 --> 00:07:25.720

공업 지구는 공장이 주로
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잖아.

00:07:25.820 --> 00:07:28.836

상업 지구보다는 좀 더
넓게 분포가 될 수 있죠.

00:07:28.936 --> 00:07:29.719

이해되죠?

00:07:29.819 --> 00:07:32.220

그러면 가장 멀리까지
가는 게 어디예요?

00:07:32.320 --> 00:07:34.096

네, 바로 주거 지구입니다.

00:07:34.547 --> 00:07:36.008

잠자는 곳이에요.

00:07:36.108 --> 00:07:36.727

이해가 되겠죠?

00:07:36.827 --> 00:07:42.169

그래서 기능적인 분화가
지대에 의해서 상업지구

00:07:42.269 --> 00:07:43.611

그다음으로 공업지구

00:07:43.711 --> 00:07:48.107

그리고 가장 넓게 넓게 벌어지는
게 주거지구가 되는 겁니다.

00:07:48.207 --> 00:07:48.936

이해가 되죠?

00:07:49.036 --> 00:07:50.454

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.

00:07:50.554 --> 00:07:53.622

그래서 내용을 한번
본다면 중심 지역에서,

00:07:53.722 --> 00:07:58.237

여기 기준점인 중심 지역에서 상업
기능이 지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

00:07:58.337 --> 00:08:00.926

상업적인 토지 이용이 유리한 거죠.

00:08:01.026 --> 00:08:02.228

결정적 요인은 뭐다?

00:08:02.328 --> 00:08:03.424

지대.

00:08:03.524 --> 00:08:06.408

다음, 여기까지는 공업기능.

00:08:06.508 --> 00:08:11.250

그리고 여기 가장 멀리까지가 주거
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

00:08:11.350 --> 00:08:12.333

이해가 돼요?

00:08:12.433 --> 00:08:15.445

가장 비싼 지대가 높은
그런 도심 지역에

00:08:15.545 --> 00:08:18.451

아파트를 짓는 건 비효율적입니다.

00:08:18.551 --> 00:08:21.223

그렇잖아요, 잠만 자고 밥
먹고 거기서 사는 건데

00:08:21.323 --> 00:08:23.522

왜 그렇게 복잡하고 사람 많고

00:08:23.622 --> 00:08:28.072

비싼 지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
살아야 됩니까, 아니잖아요.

00:08:28.172 --> 00:08:29.136
이해되겠죠?

00:08:29.236 --> 00:08:30.874
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
00:08:30.974 --> 00:08:38.388
지대에 근거해서 그 도시의 기능적인
분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

00:08:38.488 --> 00:08:41.259
그러면 저 지대 곡선
그래프를 좀 더 보기 편하게

00:08:41.359 --> 00:08:44.111
그림으로 만들어놓은 게 이거예요.

00:08:44.211 --> 00:08:47.497
이제 도시 내부 구조
그림 같은 것인데요.

00:08:47.597 --> 00:08:49.166
봐요.

00:08:49.266 --> 00:08:52.175
일단 여기 노란색 있죠?

00:08:52.275 --> 00:08:54.626
여기가 도심 지역입니다.

00:08:55.564 --> 00:08:58.346
그러니까 도시의 중심
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.

00:08:58.446 --> 00:09:00.036
가장 가운데 있으니까.

00:09:00.136 --> 00:09:03.933
여기가 지대가 제일 높겠죠,
중심 지역이랑 가장 가까우니까.

00:09:04.033 --> 00:09:04.820
그렇죠?

00:09:04.920 --> 00:09:07.555
그리고 가운데가 중간
지대, 주변 지대.

00:09:07.655 --> 00:09:09.157
그리고 그린벨트는 아시죠?

00:09:09.257 --> 00:09:11.378
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.

00:09:11.478 --> 00:09:16.479
녹지 지역이기 때문에
여기까지는 개발하지 못하게

00:09:16.579 --> 00:09:20.534
정책으로, 법으로 규제해놓은

거예요, 막아놓는 거죠.

00:09:20.634 --> 00:09:23.458
그래서 용어들 좀 보면 봐 봐.

00:09:23.558 --> 00:09:27.581
첫 번째가 집심 현상이라고
하는 말이 있습니다.

00:09:27.681 --> 00:09:29.204
집심.

00:09:29.304 --> 00:09:30.975
이 심은 뭘까요?

00:09:31.075 --> 00:09:32.344
여기요, 도심 지역.

00:09:32.444 --> 00:09:35.922
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집, 집중하는
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09:36.022 --> 00:09:40.583
그러니까 인구가 이쪽으로 쏠리는
게 집심 현상인 것이고요.

00:09:40.683 --> 00:09:41.284
오케이?

00:09:41.384 --> 00:09:44.650
그러면 거꾸로 빠져나가는
건 뭘예요?

00:09:44.750 --> 00:09:48.235
도심 지역에서 이,
이탈하는 현상이라고 해서

00:09:48.335 --> 00:09:50.157
이심 현상, 이렇게 하는 겁니다.

00:09:50.257 --> 00:09:53.403
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의
뜻은 간단합니다.

00:09:53.503 --> 00:09:57.350
도심 지역으로 모이려고
하는 것이 집심 현상.

00:09:57.450 --> 00:10:01.606
도심지역에서 외곽지대로
빠지려고 하는 게 이심 현상.

00:10:01.706 --> 00:10:02.614
되나?

00:10:02.714 --> 00:10:06.967
다음, 여기 부심이라고 보이시죠?

00:10:07.067 --> 00:10:09.604
또는 부도심이에요.

00:10:09.704 --> 00:10:13.497

2차적 도심이라고도
하고, 무슨 말이나,

00:10:13.597 --> 00:10:19.238

도심 지역의 성격도 일부 있고
주변 지대 성격도 일부 있는

00:10:19.338 --> 00:10:22.625

어떤 혼합적인 양쪽 성격이
다 있는 게 부도심.

00:10:22.725 --> 00:10:25.321

부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.

00:10:25.421 --> 00:10:28.371

다음에 보세요.

00:10:28.471 --> 00:10:33.043

이 도심 지역 근처에 사람들이
많이 모이는 시장, 그렇죠?

00:10:33.143 --> 00:10:35.097

그리고 공업 지구인 소공장.

00:10:35.197 --> 00:10:38.177

이런 것들이 중간 지대에
주로 위치합니다.

00:10:38.277 --> 00:10:41.505

시장 같은 경우는 도심
지역에도 많이 발생하지만

00:10:41.605 --> 00:10:45.843

이 도심 지역에는 시장보다는
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.

00:10:45.943 --> 00:10:48.785

그만큼 인구 밀집도가
매우 높기 때문에

00:10:48.885 --> 00:10:51.746

단순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
잘 버틸 수가 없습니다.

00:10:51.846 --> 00:10:55.213

그 높은 지가와 지대를
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

00:10:55.313 --> 00:10:56.191

그렇죠?

00:10:56.291 --> 00:11:01.323

그래서 이제 소공장 형태랑 시장 같은
게 중간지대에 들어가게 되고요.

00:11:01.423 --> 00:11:04.610

저급주택, 고급주택 되겠죠.

00:11:04.710 --> 00:11:07.572

왜 고급주택이 점점

멀리 떨어질까요?

00:11:07.672 --> 00:11:10.017

그만큼 지대가 값싸지니까

00:11:10.117 --> 00:11:15.973

넓은 토지에서 주택을 만들 수 있는
여유가 생기는 겁니다, 이해되겠죠?

00:11:16.073 --> 00:11:21.586

그리고 이 주변 지대 쪽으로 이제 학교,
이런 교육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.

00:11:21.686 --> 00:11:22.458

맞죠?

00:11:22.558 --> 00:11:30.037

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신도시라든가
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

00:11:30.137 --> 00:11:32.628

어떤 인공위성이 빙빙 돌듯이

00:11:32.728 --> 00:11:36.726

어떤 기능을 나누어서 담당하는
곳이 위성도시가 되겠죠.

00:11:36.826 --> 00:11:39.397

아마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분들은

00:11:39.497 --> 00:11:41.615

이 위성도시 종류를
다 배우실 겁니다.

00:11:41.715 --> 00:11:45.561

과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
정부 기능, 이런 것들이요.

00:11:45.661 --> 00:11:49.048

의정부 군사기능, 인천
같은 경우는 외항 기능.

00:11:49.148 --> 00:11:51.561

수원 같은 경우는 행정과 농업기능.

00:11:51.661 --> 00:11:54.954

그렇게 어떤 기능
같은 것들을 분업해서

00:11:55.054 --> 00:11:59.775

도심 지역의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는
곳이 위성도시가 되는 거고요.

00:11:59.875 --> 00:12:02.907

특히나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
bed town이라고 하는데

00:12:03.588 --> 00:12:07.842

나쁜 도시가 아니고 침대
도시야, 침상 도시.

00:12:07.942 --> 00:12:12.601
주거 기능만 중점적으로 담당하는
어떤 거대 규모의 택지.

00:12:12.701 --> 00:12:14.647
아파트촌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.

00:12:14.747 --> 00:12:15.413
그렇죠?

00:12:15.513 --> 00:12:19.240
분당, 일산 같은 경우는
옛날부터 형성되었던 신도시고

00:12:19.340 --> 00:12:23.494
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파주신도시,
운정신도시, 동탄신도시.

00:12:23.594 --> 00:12:25.077
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

00:12:25.177 --> 00:12:26.335
이해되겠죠?

00:12:26.435 --> 00:12:28.287
수원 옆에는 영통, 광교.

00:12:28.387 --> 00:12:30.784
계속 계속 확장되고 있죠.

00:12:30.884 --> 00:12:32.077
이해되겠지?

00:12:32.177 --> 00:12:35.618
왜 점점 도심 지역에서 벗어날까요?

00:12:35.718 --> 00:12:39.221
그럼요, 역시나 이유는
하나 지대 때문이에요.

00:12:39.321 --> 00:12:40.458
이해가 되겠죠?

00:12:40.558 --> 00:12:42.282
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12:42.382 --> 00:12:44.984
어려운 그림은 아니죠.

00:12:46.032 --> 00:12:47.391
좋고요.

00:12:47.491 --> 00:12:49.159
다음요.

00:12:49.259 --> 00:12:55.189
이렇게 도심 기능이 분화되면서
도심 지역과 가까운 곳에

00:12:55.289 --> 00:12:58.254
신도시고 위성도시고 이런

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

00:12:58.354 --> 00:13:01.770

이게 또 커다란 한
블록으로 묶입니다.

00:13:01.870 --> 00:13:03.255

그걸 메트로폴리탄.

00:13:03.355 --> 00:13:05.563

대도시권이라고 해요, 대도시권.

00:13:05.663 --> 00:13:09.859

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 대도시권은
어디냐, 여기 수도권이죠, 뭐.

00:13:09.959 --> 00:13:12.610

그래서 대도시의 인구가
점점 많아지게 되고

00:13:12.710 --> 00:13:15.402

기능과 영향력이 계속
확장되는 겁니다.

00:13:15.502 --> 00:13:18.754

그래서 서울 같은
대도시와 주변 촌락.

00:13:18.854 --> 00:13:22.983

아까 말씀드린 일산, 분당,
파주, 동탄, 영통.

00:13:23.083 --> 00:13:28.407

이런 곳이 완전히 하나의 생활권으로
통합되어가는 것이 대도시권.

00:13:28.507 --> 00:13:31.018

이른바 수도권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13:31.118 --> 00:13:33.024

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합니다.

00:13:33.124 --> 00:13:34.517

이해되겠죠?

00:13:34.617 --> 00:13:38.585

물론 교통과 통신의
발달도 한몫 하겠죠.

00:13:38.685 --> 00:13:43.584

교통이 불편하면 이게 하나의 생활권으로
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

00:13:43.684 --> 00:13:48.677

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신도시나
위성도시 같은 거 처음 개발될 때

00:13:48.777 --> 00:13:50.668

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게요?

00:13:50.768 --> 00:13:52.924

그럼요, 도로입니다.

00:13:53.024 --> 00:13:55.391

그리고 지하철역이
뚝리게 되어있어요.

00:13:55.491 --> 00:13:59.101

그래야지 하나의 생활권으로
의미가 생기는 것이죠.

00:13:59.201 --> 00:14:01.133

이해가 됐죠?

00:14:01.233 --> 00:14:02.736

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.

00:14:02.836 --> 00:14:04.633

다음 두 번째요.

00:14:04.733 --> 00:14:08.153

이런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

00:14:08.253 --> 00:14:11.751

당연히 우리 인간들의 생활
모습이 바뀔 겁니다.

00:14:11.851 --> 00:14:14.138

인간들의 생활 모습도 바뀔 거고

00:14:14.238 --> 00:14:17.064

자연환경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죠.

00:14:17.164 --> 00:14:19.287

그중 첫 번째로 생태환경.

00:14:19.387 --> 00:14:21.551

그러니까 자연환경은
어떻게 변화될 거냐.

00:14:21.651 --> 00:14:24.980

첫 번째, 녹지 면적이 감소하겠죠.

00:14:25.080 --> 00:14:26.259

당연하죠.

00:14:26.359 --> 00:14:30.457

원래 위성도시라든가 새로운
기능의 신도시들은

00:14:30.557 --> 00:14:32.377

처음에는 전부 다 뭐였을까요?

00:14:32.477 --> 00:14:33.869

논밭이에요, 논밭.

00:14:33.969 --> 00:14:37.509

거기를 전부 다 땅으로
메워서 아파트도 만들고

00:14:37.609 --> 00:14:42.176

각종 관공서도 이사가고 지하철 뚫고

도로 뚫고 하는 거 아닙니까?

00:14:42.276 --> 00:14:45.947

그러니까 녹지 면적이 줄게
되고 전부 다 아스팔트.

00:14:46.047 --> 00:14:48.576

포장된 도로가 만들어지게
되는 거죠.

00:14:48.676 --> 00:14:52.580

그래서 다들 실제로 보셨겠지만,
비가 많이 내릴 때

00:14:52.680 --> 00:14:56.946

녹지가 아니면 아스팔트면
빗물이 흡수가 안 됩니다.

00:14:57.046 --> 00:14:57.809

그렇잖아요.

00:14:57.909 --> 00:14:58.876

물이 잘 안 빠져요.

00:14:58.976 --> 00:15:05.058

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홍수 발생의
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.

00:15:05.158 --> 00:15:06.455

당연한 말이겠죠?

00:15:06.555 --> 00:15:11.823

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집중하고
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거니까

00:15:11.923 --> 00:15:14.844

환경 오염 문제는 자동으로
따라오는 문제일 거고요.

00:15:14.944 --> 00:15:18.541

그래서 쓰레기 문제, 공기
나빠지고 물 나빠지고

00:15:18.641 --> 00:15:23.460

생활 환경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
없는 거죠, 당연한 거죠.

00:15:23.560 --> 00:15:27.982

사람이 많이 몰리는데
이게 좋아질 리가 없죠.

00:15:28.082 --> 00:15:28.972

되겠죠?

00:15:29.072 --> 00:15:31.942

이런 자연환경의 변화도
있다는 것이고

00:15:32.042 --> 00:15:34.779

그러면 우리 인간들의
문화적인 생활양식도

00:15:34.879 --> 00:15:37.190
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

00:15:37.290 --> 00:15:40.247
첫 번째, 풍요로워지죠.

00:15:40.347 --> 00:15:44.195
산업화로 제품이 많이 생기게
되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

00:15:44.295 --> 00:15:47.689
물질적인 풍요로움은
끝도 없이 올라갑니다.

00:15:47.789 --> 00:15:49.982
다음에 도시성의 확산.

00:15:50.082 --> 00:15:53.772
그러니까 도시적 특성이라는
뜻이야, 도시성이라는 것은.

00:15:53.872 --> 00:15:57.830
보시면 지역 사회 중에서
농촌 사회랑 비교했을 때

00:15:57.930 --> 00:16:03.783
이 도시 사회는 경제적인 효율성과
합리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.

00:16:03.883 --> 00:16:07.818
다시 말씀드리면 이웃끼리
교류가 별로 없어지고

00:16:07.918 --> 00:16:13.707
익명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
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거예요.

00:16:13.807 --> 00:16:17.772
그러니까 농촌에서 지금 강의
듣는 친구도 계실 텐데

00:16:17.872 --> 00:16:19.589
샘도 강원도 촌놈입니다.

00:16:19.689 --> 00:16:26.122
저도 촌락, 강릉을 어촌이라고 해야
되나, 관광도시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데

00:16:26.222 --> 00:16:27.761
저희 동네도 별로 안 커요.

00:16:27.861 --> 00:16:30.586
고등학교라 해봐야 다섯
개밖에 없었습니다.

00:16:30.686 --> 00:16:34.287
그래서 중, 고등 친구들은
다 알아요, 서로.

00:16:34.387 --> 00:16:35.722

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.

00:16:35.822 --> 00:16:38.958

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것이
거의 무의미할 정도.

00:16:39.058 --> 00:16:42.111

제가 학원에서 농담
삼아 이야기하는 건데

00:16:42.211 --> 00:16:46.599

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,
약간 거짓말도 보태졌겠지만

00:16:46.699 --> 00:16:48.844

정말 그렇다고 보시면
돼요, 믿기지 않겠지만.

00:16:48.944 --> 00:16:53.978

만약에 샘이 고1 때 강릉
여자 고등학교 여학생이랑

00:16:54.078 --> 00:16:58.724

예를 들어서 손잡고 같이 학교를
가잖아, 원래 친한 사이인데.

00:16:58.824 --> 00:17:02.889

그런데 그걸 동네 친구들이
보면 진민이 개랑 사귀나 봐.

00:17:02.989 --> 00:17:04.703

바로 소문나고요.

00:17:04.803 --> 00:17:07.702

막말로 이야기하면 결혼한
데, 애 생겼다더라?

00:17:07.802 --> 00:17:11.855

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풍문과
소문으로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.

00:17:11.955 --> 00:17:13.873

그만큼 익명성이 없어요.

00:17:13.973 --> 00:17:18.567

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다
김 씨 아저씨, 박 씨 할머니,

00:17:18.667 --> 00:17:20.661

누구 집 둘째 아들 다 알아요.

00:17:20.761 --> 00:17:22.429

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합니다.

00:17:22.529 --> 00:17:27.516

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같은
아파트, 같은 동이어도 윗집이 누군지도

00:17:27.616 --> 00:17:32.016

밑에 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
싫어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잖아요.

00:17:32.116 --> 00:17:35.024
그냥 나 중심, 우리 가족 중심.

00:17:35.124 --> 00:17:39.525
이런 개인주의적, 합리주의적
가치관이 줄을 이루는 게

00:17:39.625 --> 00:17:42.264
이 도시성의 확산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17:42.364 --> 00:17:43.742
이해되죠?

00:17:43.842 --> 00:17:46.525
이 익명성이 가장 큰
특징이라 보시면 돼요.

00:17:46.625 --> 00:17:50.290
내가 누군지 밝혀지지
않게 되는 거죠.

00:17:50.390 --> 00:17:53.738
그리고 주민 구성도
상당히 이질적이죠.

00:17:53.838 --> 00:17:55.422
동질적일 수가 없잖아?

00:17:55.522 --> 00:17:57.775
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?

00:17:57.875 --> 00:17:59.663
그렇잖아요.

00:17:59.763 --> 00:18:04.992
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인주의적인
사고방식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.

00:18:05.092 --> 00:18:05.956
오케이?

00:18:06.056 --> 00:18:09.869
그리고 가족도 옛날처럼
확대 가족보다는 핵가족.

00:18:09.969 --> 00:18:12.254
그래 봐야 2세대
핵가족이 거의 다죠?

00:18:12.354 --> 00:18:14.284
엄마, 아빠 그리고 애들.

00:18:14.384 --> 00:18:15.795
맞죠?

00:18:15.895 --> 00:18:20.985
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비중이
점차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

00:18:21.085 --> 00:18:23.899

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
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.

00:18:23.999 --> 00:18:27.382

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,
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

00:18:27.482 --> 00:18:30.562

이런 변화된 모습을 다
보여주는 거예요.

00:18:30.662 --> 00:18:32.371

이해되죠?

00:18:32.471 --> 00:18:34.779

다음에 세 번째로 직업의 분화.

00:18:34.879 --> 00:18:38.587

그러니까 직업 같은 것도 옛날
농촌 사회랑 비교했을 때는

00:18:38.687 --> 00:18:42.424

엄청나게 분업화, 전문화되고 있죠.

00:18:42.524 --> 00:18:45.476

그만큼 직종이 많이
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.

00:18:45.576 --> 00:18:48.774

전문적 직업도 많이
증가하게 되고요.

00:18:48.874 --> 00:18:54.230

1차 산업 때는 직업이라 해봐야
농촌 사회에서는 농부.

00:18:54.330 --> 00:18:54.889

그렇잖아요?

00:18:54.989 --> 00:18:58.200

어촌사회에서는 어부,
광촌사회에서는 광부.

00:18:58.300 --> 00:19:02.914

직업이 되게 동질적이고
단순하고 되게 비슷비슷했는데

00:19:03.014 --> 00:19:04.643

현대 사회에서는 2차,

00:19:04.743 --> 00:19:08.467

특히나 이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
산업구조가 바뀌게 되면서

00:19:08.567 --> 00:19:11.404

직업의 종류가
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.

00:19:11.504 --> 00:19:12.789

이해되겠죠?

00:19:12.889 --> 00:19:17.803

그만큼 도시성이
확산되고 있게 되죠.

00:19:18.611 --> 00:19:26.038

그럼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
문제점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

00:19:26.138 --> 00:19:28.093

도시에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야

00:19:28.193 --> 00:19:31.703

당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
계시네 싶을 거예요.

00:19:31.803 --> 00:19:34.861

첫 번째는 도시 문제입니다.

00:19:35.467 --> 00:19:41.247

한정된 공간에, 그럼요, 인구가
밀집하게 되니까 살 집이 없어요.

00:19:41.347 --> 00:19:44.184

주택 부족 문제 그리고
집이 있다고 해도

00:19:44.284 --> 00:19:47.316

아주아주 노후한 불량 주택 문제.

00:19:47.416 --> 00:19:52.271

벽에 금 가 있고 물도 잘 안 나오고
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

00:19:52.371 --> 00:19:55.769

공간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.

00:19:55.869 --> 00:19:58.234

두 번째, 차 많이 막힙니다.

00:19:58.334 --> 00:19:58.796

그렇죠?

00:19:58.896 --> 00:20:04.552

교통체증, 주차 때문에 살인까지
벌어지고 정말 끔찍합니다.

00:20:04.652 --> 00:20:08.402

그리고 세 번째, 사람들끼리
너무 이질적이고

00:20:08.502 --> 00:20:11.195

다양한 범죄 같은 것들도
많이 발생하죠.

00:20:11.295 --> 00:20:15.405

특히나 최근에 묻지마
범죄, 끔찍하죠.

00:20:15.505 --> 00:20:16.916

다음 네 번째는 각종 환경 문제.

00:20:17.016 --> 00:20:18.720

이건 말할 게 있나요?

00:20:18.820 --> 00:20:22.063

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
열, 포장 면적.

00:20:22.163 --> 00:20:23.551

이게 아스팔트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20:23.651 --> 00:20:27.928

이 아스팔트에 의해서
태양열이 계속 흡수가 되니까

00:20:28.073 --> 00:20:30.702

도시 지역이 훨씬 더
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.

00:20:30.802 --> 00:20:33.957

그래서 아스팔트 도로 같은
거 여름철에 잘 보시면

00:20:34.057 --> 00:20:39.275

열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,
엄청나게 뜨거워요.

00:20:39.375 --> 00:20:41.813

그리고 고층 건물이
너무 많다 보니까

00:20:41.913 --> 00:20:44.294

바람 같은 것들도 잘
안 들어오게 되고요.

00:20:44.394 --> 00:20:49.048

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
이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

00:20:49.148 --> 00:20:52.241

가장 독특한 현상이 히트 아일랜드.

00:20:52.341 --> 00:20:56.938

영어 그대로 열섬, heat
island 현상이 생기죠.

00:20:57.038 --> 00:20:59.708

특히나 대한민국 같은
경우는 서울시.

00:20:59.808 --> 00:21:04.641

특히나 서울 중에서도 고층 건물이
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종로,

00:21:04.741 --> 00:21:08.842

그 도심 지역 또는 강남, 이런
지역에서 이 히트 아일랜드,

00:21:08.942 --> 00:21:11.441

열섬 현상이 발생하죠.

00:21:11.541 --> 00:21:14.369

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훨씬
더 덥다는 것입니다.

00:21:14.469 --> 00:21:18.600

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
그림이 교과서에 있는데요.

00:21:19.903 --> 00:21:23.298

원리는 단순해요, 봐 봐요.

00:21:23.398 --> 00:21:28.230

일단 그림을 꼭 보시면
땅이 녹지가 아니죠.

00:21:28.330 --> 00:21:30.098

지표가 다 아스팔트입니다.

00:21:30.198 --> 00:21:33.045

포장 면적인 거예요.

00:21:33.145 --> 00:21:36.592

뜨거운 태양열 님이 옵니다.

00:21:36.692 --> 00:21:41.463

그러면 이게 녹지면 어느
정도는 열이 흡수될 텐데

00:21:41.563 --> 00:21:45.791

이게 지금 다 포장 면적이니까 지표가
가열되는 거예요, 더 뜨겁게.

00:21:45.891 --> 00:21:49.198

그래서 복사열이라고 해서
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

00:21:49.298 --> 00:21:54.152

여름철에 아스팔트 보면 막
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잖아?

00:21:54.252 --> 00:21:56.683

그걸 복사열 에너지라고
하는 겁니다.

00:21:56.783 --> 00:21:57.491

그렇죠?

00:21:57.591 --> 00:22:02.122

그러면 이 열이 바로바로
빠져나가면 좋은데

00:22:02.222 --> 00:22:03.732

이게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.

00:22:03.832 --> 00:22:11.146

그러니까 열섬이라고 해서 이 도시
지역이 거대한 이른바 돔 같은 게.

00:22:11.246 --> 00:22:14.564

돔구장 할 때 그런 돔 같은
게 쓰이는 거예요.

00:22:14.664 --> 00:22:19.812
그래서 이 열이 계속 여기
저장되어있는 거죠, 숨 막히는 거죠.

00:22:19.912 --> 00:22:25.456
바람이라도 잘 불면 좋은데
이런 63빌딩, 트럼프 빌딩.

00:22:25.556 --> 00:22:28.536
이런 고층 건물이 바람의
흐름을 다 차단해서

00:22:28.636 --> 00:22:31.480
여기가 더 갇히게 되는 것이고요.

00:22:31.580 --> 00:22:34.174
그리고 열만 갇히면 얼마나 좋아요.

00:22:34.274 --> 00:22:39.643
먼지, 매연 각종 대기오염
물질도 갇히게 되는 겁니다.

00:22:39.743 --> 00:22:45.738
그리고 구름까지 끼있으니까 복사열이고
에너지 열이고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.

00:22:45.838 --> 00:22:50.822
그래서 이 섬처럼 뜨거운 열섬이
생기는 게 이 현상인 거죠.

00:22:50.922 --> 00:22:55.464
그래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
주로 고층건물이 많은

00:22:55.564 --> 00:22:59.425
어떤 중심업무 지구 있잖아,
종로라든가 강남 같은 데 가면

00:22:59.525 --> 00:23:02.417
여름철이 더 심각하게 더워요.

00:23:02.517 --> 00:23:04.386
그러면 에어컨 더 틀 거고

00:23:04.486 --> 00:23:07.801
그러면 외풍기에서 나오는
열이 또 더 가해질 거고

00:23:07.901 --> 00:23:11.696
점점 뜨거워지는 거죠, 이해되겠죠?

00:23:11.796 --> 00:23:13.038
열섬 현상 되겠습니다.

00:23:13.138 --> 00:23:17.230
서울시가 대표적인 열섬의
상징적인 도시죠.

00:23:17.330 --> 00:23:20.846
미국 뉴욕 같은 데는

말할 것도 없고요.

00:23:20.946 --> 00:23:25.498

중국 상하이는 죽는데,
숨을 쉴 수가 없다잖아.

00:23:26.338 --> 00:23:30.549

인간들 편하라고 만든
이런 대도시권에서

00:23:30.649 --> 00:23:34.688

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.

00:23:35.501 --> 00:23:39.277

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,
노동 문제가 있죠.

00:23:39.377 --> 00:23:42.341

이건 비단 산업화, 도시화
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

00:23:42.441 --> 00:23:46.879

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
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보자.

00:23:46.979 --> 00:23:53.352

첫 번째, 산업화 때문에 요구하는
능력과 직업이 변화되는 거죠.

00:23:53.452 --> 00:23:57.859

산업화 이전 때는 막말로
몸 좋고 힘세고

00:23:57.959 --> 00:24:02.896

농사 잘 지으면 최고의 신랑감이었는데
이제는 아니잖아요, 그렇지?

00:24:02.996 --> 00:24:09.388

대학도 나와야 되고 전문직, 고액연봉,
가름한 텍션 많잖아, 그렇지?

00:24:09.488 --> 00:24:11.182

그렇게 직업도 변하게 되고

00:24:11.282 --> 00:24:15.473

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능력 같은
거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.

00:24:15.573 --> 00:24:19.169

그런데 그런 능력을 다 갖추는 건
누구나 다 갖출 수는 없잖아.

00:24:19.269 --> 00:24:23.310

그러니 그럴 능력이 또는
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
00:24:23.410 --> 00:24:29.277

이 일자리 자체가 희소하니까 항상
부족하니까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

00:24:29.377 --> 00:24:30.271

그렇죠?

00:24:30.371 --> 00:24:34.587

그리고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
이해관계 충돌하는 건

00:24:34.687 --> 00:24:36.673

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.

00:24:36.773 --> 00:24:39.482

노사 갈등, 노사 분쟁 문제.

00:24:39.582 --> 00:24:44.392

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
분쟁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.

00:24:44.492 --> 00:24:45.826

그렇죠?

00:24:45.926 --> 00:24:50.994

다음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
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노동 소외.

00:24:51.094 --> 00:24:53.212

인간 소외 현상을
이야기하는 것인데요.

00:24:53.312 --> 00:24:56.126

이건 윤리 교과에서
깊이 있게 배웁니다.

00:24:56.226 --> 00:25:02.443

뜻만 간단하게 보면, 모든 게
자동화되고 기계화 되다 보니까

00:25:02.543 --> 00:25:07.398

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
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.

00:25:07.498 --> 00:25:11.307

그러니까 인간이 기계한테
종속되는 거죠.

00:25:11.407 --> 00:25:14.612

메인이 기계인 거고 그
기계가 고장 나지 않게

00:25:14.712 --> 00:25:17.620

잘 관리만 해주는 게 우리
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

00:25:17.720 --> 00:25:21.052

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
일을 해서 얻는

00:25:21.152 --> 00:25:23.397

만족감과 성취감이 줄어드는 거예요.

00:25:23.497 --> 00:25:27.518

그러니까 옛날에는 옷 하나 만들 때

00:25:27.618 --> 00:25:30.871

꼼꼼하게 다 바느질하고
재단하고 해서 만들고

00:25:30.971 --> 00:25:37.196

옷을 탁 만들면 어떤 장인정신처럼
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겼을 거예요.

00:25:37.296 --> 00:25:41.170

그런데 지금은 공장에서 각종
방적기, 편직기가 생기니까

00:25:41.270 --> 00:25:43.626

옷이 대량으로 막
나오잖아, 그렇지?

00:25:43.726 --> 00:25:47.266

스위치만 잘 켜고 열만 잘
배열하면 옷이 1만 벌,

00:25:47.366 --> 00:25:49.201

10만 벌 막 나오니까

00:25:49.301 --> 00:25:52.970

옷을 만드는 거 자체에 대해서
얻어지는 노동만족감.

00:25:53.070 --> 00:25:54.907

어떤 장인정신, 성취감.

00:25:55.007 --> 00:25:59.253

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
거고 일을 하다가 느끼는 건

00:25:59.385 --> 00:26:03.351

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이
기계를 만지는 방법을 배우면

00:26:03.451 --> 00:26:06.233

나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구나.

00:26:06.333 --> 00:26:09.486

이 공장의 주인은 내가
아니고 저 기계 님이구나.

00:26:09.586 --> 00:26:11.524

이런 게 소외현상이죠.

00:26:11.624 --> 00:26:13.612

어떤 심리적인 소외감.

00:26:13.712 --> 00:26:18.319

노동 소외는 결국 인간 소외로까지
번지게 되어있습니다.

00:26:18.419 --> 00:26:23.413

이걸 경고한 게 독일의 경제학자
마르크스라는 분이 있죠.

00:26:23.513 --> 00:26:27.066

사회주의 만드신 그분이요,

속된 말로 빨갱이 조상님.

00:26:27.166 --> 00:26:32.136
그분이 이제 인간 소외, 노동 소외에
대한 경고를 던진 사상가입니다.

00:26:32.236 --> 00:26:33.789
아시겠죠?

00:26:33.889 --> 00:26:36.561
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 불균형.

00:26:36.661 --> 00:26:38.670
이건 앞서 또 한 번 배웠죠?

00:26:38.770 --> 00:26:40.539
도농 격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26:40.639 --> 00:26:45.901
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제
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.

00:26:46.001 --> 00:26:48.236
한국 사회에도 이거 심각한 문제죠?

00:26:48.336 --> 00:26:48.924
그렇죠?

00:26:49.024 --> 00:26:54.297
모든 기능이 다 도시에
집중되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.

00:26:54.397 --> 00:26:59.003
그런 촌락 지역 사회는
점점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

00:26:59.103 --> 00:27:03.192
기능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
보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

00:27:03.292 --> 00:27:08.320
그러니까 인구가 대도시권
쪽으로 더 몰리는 거죠.

00:27:08.420 --> 00:27:09.951
이해가 되죠?

00:27:10.051 --> 00:27:13.020
우리나라 현실 이야기들입니다.

00:27:13.120 --> 00:27:17.893
그러면 퀴즈하고 개념
한번 복습해볼게요.

00:27:19.376 --> 00:27:21.510
갑니다, 1번.

00:27:21.610 --> 00:27:23.932
체크 표시해봐라, 첫 번째.

00:27:24.032 --> 00:27:26.261

가내 수공업은, 그러니까 가내.

00:27:26.361 --> 00:27:30.590

집 안에서 손으로 뭔가
만드는 이런 가내 수공업은

00:27:30.690 --> 00:27:33.982

산업화 이전에 주로 이루어졌겠죠,
당연한 거 아니에요?

00:27:34.082 --> 00:27:38.444

산업화 이후에는 가내 수공업
형태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.

00:27:38.544 --> 00:27:43.705

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해서 대량
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

00:27:43.805 --> 00:27:44.888

맞죠?

00:27:44.988 --> 00:27:46.475

다음 2번요.

00:27:46.575 --> 00:27:51.614

산업화 이후 도시 수와 도시
인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.

00:27:51.714 --> 00:27:52.551

그렇잖아?

00:27:52.651 --> 00:27:57.212

산업 기능과 각종 주요 기능이
도시 쪽으로 전부 다 집중되는데

00:27:57.312 --> 00:28:01.056

그러면 인구는 도시로 모이는
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?

00:28:01.156 --> 00:28:04.074

다음 3, 산업화는 18세기.

00:28:04.222 --> 00:28:07.977

이건 영국에서 이루어집니다.

00:28:08.077 --> 00:28:12.979

맨체스터 지방에서 산업 혁명이
이루어지죠, 이건 됐고요.

00:28:13.079 --> 00:28:19.315

다음 4번, 산업화 이후 인간의 주된
공간은 당연히 도시로 바뀝니다.

00:28:19.415 --> 00:28:22.611

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가는
말로 말씀드렸지만

00:28:22.711 --> 00:28:30.179

이 산업화와 도시화는 거의 동시에
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요.

00:28:30.279 --> 00:28:30.778
아시겠죠?

00:28:30.878 --> 00:28:32.269
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

00:28:32.369 --> 00:28:38.402
다음 5번,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
공간 효율 이용을 위해서, 고층 건물.

00:28:38.502 --> 00:28:44.169
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게
된다고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죠.

00:28:44.269 --> 00:28:45.277
할만하죠?

00:28:45.377 --> 00:28:46.531
어렵지 않아요.

00:28:46.631 --> 00:28:48.793
다음 두 번째요.

00:28:48.893 --> 00:28:50.680
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.

00:28:51.250 --> 00:28:56.856
산업화 이전과 이후 모습을 한번
비교해볼래, 라는 겁니다.

00:28:56.956 --> 00:28:57.877
비교해봅시다.

00:28:57.977 --> 00:29:02.842
일단 산업화 되기 전, 거주
공간은 도시 중심이겠어요,

00:29:02.942 --> 00:29:04.399
촌락 중심이겠어요?

00:29:04.940 --> 00:29:06.484
촌락 중심이겠죠.

00:29:06.584 --> 00:29:09.676
이게 산업화,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

00:29:09.776 --> 00:29:13.073
거주 공간도 도시
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죠.

00:29:13.173 --> 00:29:14.783
이렇게 정리하면 되죠.

00:29:14.883 --> 00:29:20.821
다음, 산업화 이전에는
당연히 농업, 어업.

00:29:20.921 --> 00:29:24.446
그런 1차 산업 중심일
수밖에 없죠, 그렇죠?

00:29:24.546 --> 00:29:28.589
그런데 산업화, 도시화를 통해서
2차, 3차 산업 중심으로

00:29:28.689 --> 00:29:32.044
산업 중심 구조가
바뀌어 가게 되는 거고요.

00:29:32.144 --> 00:29:32.928
되지?

00:29:33.028 --> 00:29:38.306
다음 口, 공동체 의식이 강한
건 당연히 산업화 이전이고요.

00:29:38.406 --> 00:29:41.937
개인주의, 합리주의가
강하게 확산되는 것이

00:29:42.037 --> 00:29:45.925
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후에
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.

00:29:46.025 --> 00:29:47.716
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

00:29:47.816 --> 00:29:49.113
되겠죠?

00:29:49.213 --> 00:29:50.179
좋고요.

00:29:50.279 --> 00:29:54.093
다음에 세 번째 O, X 해볼게요.

00:29:56.033 --> 00:30:01.262
첫 번째,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
직업의 다양성과 직업의 전문화.

00:30:01.362 --> 00:30:04.798
직업의 분업화는 당연한 겁니다.

00:30:04.898 --> 00:30:05.774
다음 두 번째요.

00:30:05.874 --> 00:30:09.241
산업화 도시화 이후
공동체주의적인 정신보다는

00:30:09.341 --> 00:30:13.979
개인적 가치관이 강화되는
거죠, 약화되는 게 아니고.

00:30:14.079 --> 00:30:16.159
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거지.

00:30:16.259 --> 00:30:17.226
맞지?

00:30:17.326 --> 00:30:21.909
다음 세 번째, 산업화, 도시화 이후

긍정, 부정 측면 다 나타냅니다.

00:30:22.009 --> 00:30:25.204
물론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
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지만

00:30:25.373 --> 00:30:27.357
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.

00:30:27.457 --> 00:30:30.935
가장 대표적인 긍정적인
측면은 삶의 질 향상.

00:30:31.035 --> 00:30:31.494
그렇죠?

00:30:31.594 --> 00:30:34.733
또는 인간의 편의성 증대,
물질적인 풍요로움.

00:30:34.833 --> 00:30:38.707
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
볼 수가 있을 겁니다.

00:30:38.807 --> 00:30:39.951
됐죠?

00:30:40.051 --> 00:30:45.326
다음 마지막 4번 정리할게요.

00:30:45.426 --> 00:30:47.170
이건 더 쉬워요.

00:30:47.270 --> 00:30:53.675
산업화,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
체크해보랍니다, 문제.

00:30:53.775 --> 00:30:57.551
일단 공간 불평등, 당연히 문제죠.

00:30:57.651 --> 00:31:01.026
누구는 집이 있고
누구는 집이 없는.

00:31:02.782 --> 00:31:05.242
실질적인 주거권의 차이.

00:31:05.948 --> 00:31:10.024
누구는 전세, 누구는
월세, 그렇잖아요?

00:31:11.049 --> 00:31:12.583
이건 문제죠.

00:31:12.683 --> 00:31:14.984
다음 두 번째, 환경 오염의 확대.

00:31:15.084 --> 00:31:16.704
당연한 거 아닙니까?

00:31:16.804 --> 00:31:19.290

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,
아까 마르크스 이야기했던

00:31:19.390 --> 00:31:21.124
노동소외와 인간소외 현상.

00:31:21.224 --> 00:31:24.502
이건 전부 다 산업화와
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이죠.

00:31:24.602 --> 00:31:26.939
그러면 녹지 공원
확대는 문제일까요?

00:31:27.039 --> 00:31:31.306
이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
해결책으로 보는 게 맞죠.

00:31:33.553 --> 00:31:34.654
이해가 되죠?

00:31:34.754 --> 00:31:35.725
어렵지 않습니다.

00:31:35.825 --> 00:31:38.973
답은 ㄱ, ㄴ, ㄷ까지입니다.

00:31:39.073 --> 00:31:40.291
오케이?

00:31:40.391 --> 00:31:40.796
좋습니다.

00:31:40.896 --> 00:31:41.587
여기까지고요.

00:31:41.687 --> 00:31:46.734
첫 번째 인문지리 파트는 이 정도
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습니다.

00:31:46.834 --> 00:31:47.470
오케이?

00:31:47.570 --> 00:31:52.374
다음 시간 두 번째 테마는 또 다음
주제를 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.

00:31:52.474 --> 00:31:54.639
아직까지 어려운 건 솔직히 없죠?

00:31:54.739 --> 00:31:55.270
그렇죠?

00:31:55.370 --> 00:31:59.537
헌법 파트라든가 정의로운 파트보다는
여기가 훨씬 더 쉬워요.

00:31:59.637 --> 00:32:00.077
그렇죠?

00:32:00.177 --> 00:32:01.865

가볍게 공부하시면
됩니다, 아시겠죠?

00:32:01.965 --> 00:32:04.133
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.

00:32:04.233 --> 00:32:05.992
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

00:32:06.092 --> 00:32:08.026
수고하셨습니다.